

민주연구원 “퇴직연금 FAQ” 정책브리핑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3월 4일(수), “퇴직연금 FAQ”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이재영 원장은 “퇴직연금의 기금화는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대한민국 현실에서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문제”라며, “기금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는 퇴직연금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는 계기인 동시에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열쇠”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브리핑은 기금화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설명하는 동시에, 퇴직연금에 대한 오해와 사실을 정리,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 이번 정책브리핑은 퇴직연금 기금화의 의미와 필요성, 민주당과 이재명정부의 퇴직연금 제도 개선 추진 경과, 퇴직연금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향후 과제를 다루었다.
 - 첫째, 퇴직연금 기금화는 기존의 계약형과 달리, 기금을 설립하되 독립된 수탁법인이 다수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노사 및 전문가가 전략적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제고하는 제도로 다층적 연금제도 완성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 둘째, 민주당은 단순한 모수개혁을 넘어 제도개혁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연금 개혁특위와 정책간담회 활동을 이어왔으며, 이재명정부 이후 국정과제 채택과 다수의 법안 개정으로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 셋째, 퇴직연금 기금화는 연금화와 함께 핵심적인 개혁 사항으로, 첫 번째 오해로 일각에서는 이를 국가가 통제하는 연금사회주의라고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고, 해외 금융 선진국과 같이 노사와 전문가가 기금을 소유하는 선진 자본주의형 지배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 넷째, 두 번째 오해는 퇴직연금기금을 주가부양이나 환율 방어에 사용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비판으로, 실제로는 퇴직연금기금의 운용주체는 노사대표와 자산운용 전문가

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의 정부 개입은 명백한 가짜뉴스이다.

- 다섯째, 세 번째 오해는 기금화 때문에 원금을 손실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현재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매우 낮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지금이 실질적 원금 손실 상태이고, 오히려 기금화를 통해 전략적 투자를 할 경우 손실 위험 가능성은 개별 투자자일 때보다 낮다.
 - 여섯째, 네 번째 오해는 기금형을 강제해 기업과 노동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지만, 현재 논의되는 기금형 도입은 기존의 계약형을 강제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추가 제도를 도입해 오히려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며, 기금형으로의 전환은 수익률에 의한 자연스러운 조정이 될 것이다.
 - 일곱째, 이러한 퇴직연금 기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추가적인 개정과 영세사업장의 가입 유도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조치, 퇴직급여 지급대상의 근속요건 폐지, 구체적인 기금 운용 주체의 설정,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조성으로 퇴직연금을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 만드는 일이 남아 있다.
- 민주연구원 신영민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기금화는 노사정TF와 당정협의를 통해 큰 방향이 정해진 과제로, 기금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가 안착되면 국민이 안정된 노후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